

2026년 5월 19일(화)

###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 2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 3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 4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 후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 1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 2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 3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 후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 기도 담당

5/19(화)	5/20(수)	5/21(목)	5/22(금)	5/23(토)	5/25(월)
박경원2 안수집사	이인호1 안수집사	황영태 재적안수집사	이종덕2 안수집사	한상철3 재적안수집사	유장호 안수집사

## 이른아침예배

인도 : 황효립 목사

-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 찬 송 ..... 455장 ..... 다 함 께
- 기 도 ..... 박경원2 안수집사
- 성 경 봉 독 ..... 요한복음 13:12~17 ..... 인 도 자
- 찬 양 ..... 나의 갈 길 다가도록 ..... 새벽찬양대
- 설 교 ..... 『요한복음 강해(81) ..... 이상학 담임목사  
- 서로 발을 씻어주라』
-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 찬 송 ..... 421장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 오늘의 묵상 >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5월 19일(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새문안교회의 모든 행사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선교사에게도 큰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새문안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전심으로 기도하며 헌당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항상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북한의 독재 아래 고통받는 동포들을 붙잡히 여겨 주시고, 속히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